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Issue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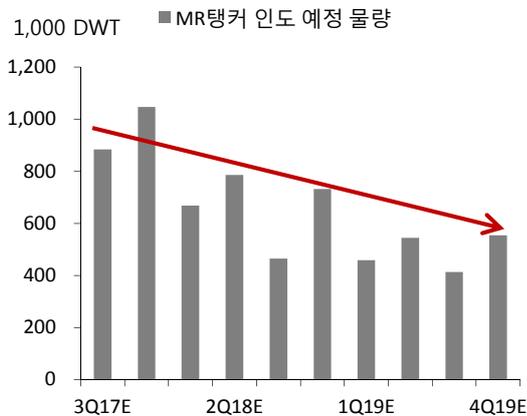
- ✓ MR 탱커 용선료가 분기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음
- ✓ 용선료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발주를 기대할 수 있음
- ✓ 허리케인 하비(Harvey) 이슈는 단기간에 국한됨

MR 탱커 용선료가 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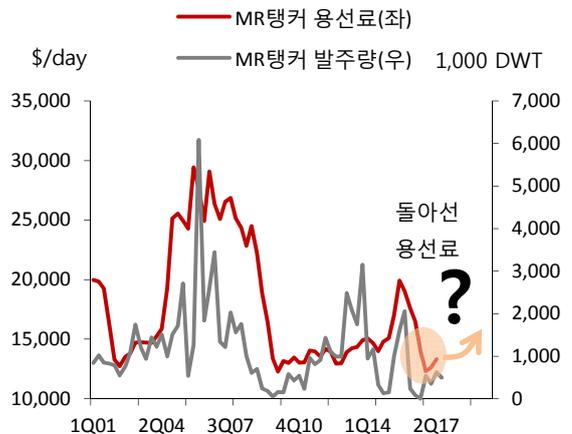
2017년 1분기부터 현대미포조선은 MR 탱커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5 척, 2분기 28 척을 수주했으며 7월에는 한 달간 6 척을 수주했다. 통상 6월 말부터 7월까지 (길게는 8월까지) 주요 선주들이 휴가 시즌에 접어들어 감안할 때, 1분기 수주량을 웃도는 6 척의 신규 수주량은 고무적인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용선료가 오르는 시그널이 포착되었다. 작년 4분기 평균 12,298\$/일 수준이던 용선료는 올해 1분기 평균 12,635\$/일, 2분기 평균 13,337\$/일까지 상승했다. 향후 인도될 MR 탱커 물량이 우하향을 그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역의 관계에 있는 용선료가 서서히 오르는 모습은 발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미국 ECC 가동에 따른 MR 탱커 발주 추세는 무리 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허리케인 하비(Harvey)의 영향으로 미국 ECC 가동 지연 이슈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주요 시설들의 가동률은 재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라는 점에서 ECC 가동 지연은 매우 단기간에 국한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섹터 내 최선호주의 견을 유지하는 바이다.

MR 탱커 인도량은 우하향을 그릴 전망



그렇다면 용선료가 오르며 발주량도 늘어날 것임



자료 : Clarksons Research, SK 증권

자료 : Clarksons Research,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